

지혜의 말씀

불기 2567년 5월 / 통권 507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법구경 (法句經)

017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하고 괴로워하고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한다.

018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착한 일을 했는가’ 싶어 기뻐하고
좋은 세상에 거듭 기뻐한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물방울이 모여 / 윤성스님

사자단상(四字斷想) · 8

지지정진(遲遲正進) / 무경스님

관음전불사 권선문 · 12

설담장학회 · 13

대광사 5월 법회 및 행사 · 13

알림마당 · 14

고맙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템플스테이 신축관(휴심당) 완공식 안내

대광사 템플스테이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물방울이 모여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기도 하고 거대한 강이나 호수가 되기도 한다. 적어지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물방울이지만 모이면 엄청난 크기의 바다나 강이나 호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은 얼음이 되기도, 하고 증기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열과 압력에 의한 모습의 변화일 뿐 질량이 소멸되거나 새로 생성되지는 않는다.

실제 지구 표면은 물이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겉으로 보면 지구라기보다 수구(水球)라 해도 될 정도로 물

이 많다.

물이 풍족한 지구지만 대부분의 물은 염분이 가득한 짠 바닷물(97.47%)이거나 빙하거나. 만년설(1.76%)이거나, 지하수(0.76%)라서 인간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그리 많지 않다,

물은 약 35억 년 전 지각변동과 분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은 유기물과 빛의 광합성 작용 등을 통해 생명체를 탄생시켰고, 오랜 진화를 거치면서 수많은 생명체를 등장시켰다. 그래서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물은 때로 강이 되어 수천 킬로를 흐르기도 하는데, 이 기나긴 물줄기는 실제로 생명 탄생을 위해 다양한 영양소를 운반하고 저해 물질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절대 작용을 한다.

물을 생명수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다. 물이 없는 곳에선 사람은 물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다.

달에 로켓을 쏘아 올릴 때 가장 큰 관심사도 그곳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였다.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산소와 햇빛과 더불어 절대 요소다.

인체 구조의 70%가 물이라는 과학의 분석은 부처님의 인체 4대 원소 구성 이론을 뒷바침 한다.

“흙의 원소와, 물의 원소와, 불의 원소와, 바람의 원소가 4대 원소다. 인체는 이렇게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네 가지 원소가 서로 화합하면 건강이 유지된다고 하셨다. 나이가 들면 사대 원소의 조화가 차츰 허물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피부는 탄력을 잃게 되고 몸의 기운은 줄어들고 각종 병에 시달리게 된다.” 하셨다.

원소는 어떤 물질의 최소 단위를 이루는 분자의 성질을 말한다. 물의 원소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성질의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물질의 모양이 결정된다고 한다.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건강한 원소를 만들거나 건강하지 못한 원소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하루하루의 마음과 행동이 자기 삶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즉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사느냐가 행 불행의 절대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다.

어떤 물체가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물질로 결합하기 전의 에너지 상태인 원자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때의 원자 결합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에너지라고 한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마음이라는 말이다. 결국 마음은 몸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허약한 불행 속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오늘은 내일의 원천이며 어제는 오늘의 근원이다.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을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게 한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루라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이 편안하고 건강할 것이다.

한 방울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모여 백년 내지는 칠 팔십 년의 인생을 만든다. 지금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미래를 결정짓게 되며 일생의 강을 만들게 된다.

작은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이면 큰 바다를 만들듯이, 하나하나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일생을 만들게 된다. 하루하루 작은 일과가 모여 인생이라는 강과 호수를 만들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참으로 소중한 삶의 가치를 잃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지지정진 (遲遲正進)

무경스님 / 대광사 주지

몇 차례 봄비가 내려 곡우(穀雨)에 다다를수록 초목은 잎이 무성해지고 푸르름이 더해진다. 이 시기에 내리는 차가운 빗방울은 자연의 생명력을 담고 있어 찻잎의 세맥(細脈)으로 약 기운이 돌게 한다. 사람도 나이가 어릴수록 선천지기가 순수하고 왕성하듯이, 녹차도 여린 차순으로 만들수록 기운이 순하고 강한 약성을 품고 있다. 그래서 곡우 이전에 어린 잎을 따서 만든 차를 우전(雨前)이라 하여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필자가 선원(禪院)에 다닐 때는 곡우를 일주일 앞둔 시기가 되면 이따금 쌍계사 스님들과 함께 하동을 방문하여 손수 찻잎을 따다가 녹차를 만들어 마시곤 했다.

따가운 봄 햇살 아래 찻잎을 따는 일은 생각보다 고단하다. 경

사진 산비탈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기도 불편하고, 허리 보다 작은 야생 차나무 밑에서 종일 몸을 굽혀 일일이 찻잎을 따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따 찻잎은 수분을 없애기 위해 뜨겁게 달군 무쇠솥에서 넣고 여러번 뒤어야 한다.

이 뒤는 과정에서 자칫 불조절과 적절한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그 동안의 정성이 도로 아미타불 되기 때문에 정신을 빠짝 차리고 집중력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차를 만드는 과정의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냥 돈 주고 사먹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하지만 그냥 돈을 주고 사서 맛보는 녹차와 찻잎 하나에 들어간 정성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다음 맛보는 녹차가 어떻게 같다고 하겠는가. 하나의 금광석을 보아도 범인의 눈에는 돌덩이로 보이고 광부의 눈에는 금덩이로 보이듯이, 한 모금의 차를 마셔도 범인이 느끼는 맛과 다인(茶人)이 느끼는 맛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지혜로운 광부가 돌덩이에서 황금을 뽑아내듯이, 다인은 구수하고 씩씩한 한 모금의 녹차에서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감로(甘露)의 맛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고의 조미료가 허기(虛飢)라고 한다면, 최고의 다구(茶具: 차 맛을 우려내는 도구)는 녹차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간 정성이라 할 수 있다.



속가에서는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말이 있지만,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녹차의 이러한 탈속한 맛은 불교를 닮은 구석이 있다.

불교에서는 평범한 중생이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팔정도(八正道)를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팔정도란 쉽게 말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불자님들이 공덕을 쌓기 위해 자주 읽는 <금강경>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경전에서 수보리 존자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하고 질문하는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열반의 경지를 맞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자신이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역시도 열반이라는 결과보다는, 착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특히 절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하는 것 보다, 서로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화목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

나하면, 좋은 결과란 좋은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일을 도우면 반드시 좋은 과보로 되돌아오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과 불화가 생기면 재앙도 함께 되돌아오니, 괜한 속 좁은 중생심 때문에 그동안에 쌓은 공덕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기제사비가 영가 1위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가 추가시 5만원씩 추가됩니다. (예:영가 2위이면 40+5=45만원)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관음전 불사 권선문」

대광사가 현재 위치에 산문을 연지 벌써 40여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간 주지 스님도 운성, 탄경, 자경, 서경, 무경 스님을 지나며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여러 중창불사를 했고, 사회적 역할을 하며 부처님 법 전하는 일에 혼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정체되었던 관음전 건축 부지 문제를 해결하여, 오랫동안 사부대중이 염원하시던 관음전 불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웅전 오른편 9평 규모로 지어질 관음전은 관음의 소리를 들어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자성의 공간'이자, 거룩하신 관세음의 모습을 닮아지는 '기도의 전당'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임을 걱정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 주저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때 일수록 더욱 가피를 받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종교인의 본분이라 감연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질 대광사 관음전이 불자님들의 기도와 자성의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7(2023)년 2월

회주 설담운성 · 주지 무경 합장

관음전 불사 동참계좌

수협 2010-0909-2481(대광사)

템플스테이 신축관(휴심당) 완공식 안내

- 불기 2567년 5월 20일(양력)
- 초하루법회 이후 휴심당 앞마당



◎ 대광사 5월 법회 및 행사 ◎

- ◇ 5월 5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5월 20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5월 22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5월 27일 :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오전 10시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대광후원회

(2023.3.19.~2023.4.18)

| | | | |
|------------|------------|------------|----------------|
| 송성수 10,000 | 조우현 10,000 | 이인숙 20,000 | 구자민 80,000 |
| 황두관 10,000 | 강성진 10,000 | 정연수 30,000 | 배동환변호사 50,000 |
| 김태연 10,000 | 홍승운 20,000 | 이병정 30,000 | 오주원 100,000 |
| 정진이 10,000 | 김경남 20,000 | 김민재 50,000 | 박진호 100,000 |
| 오현철 10,000 | 윤숙희 20,000 | 조한분 50,000 | 쥬카텍홀딩스 300,000 |
| 박미애 10,000 | 변창인 20,000 | 문미화 50,000 | |
| 조인우 10,000 | 김병문 20,000 | 정대식 50,000 | |

-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0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후원

후원회 10만원

♥ 지혜의말씀 후원

양재봉 1만원 / 송민기 1만원

♥ 설담장학회

주지스님 10만원 / 진병천 3만원 / 더열정영어 5만원 / 박외순 5만원
문순자 10만원 / 김순남 1만원 / 한지민 30만원

김성철 신도회 부회장님께서 설법전, 대웅전에 선공기 15대 보시 하셨습니다.

♥ 관음전

이동희 500만원 / 이수영, 이성기 500만원 / 이봉희 200만원
박종호 100만원 / 조민정 100만원 / 박지은 100만원 / 하정영 100만원
이미정 100만원 / 김도원 100만원 / 남미영 100만원 / 구명희 100만원
법 료 100만원 / 최귀향 100만원 / 이경순 100만원 / 이광석 100만원



운영위원회 50만원 / 이진이 50만원 / 이현철 50만원 / 문순자 50만원
 방진영 50만원 / 이동훈 50만원 / 이성호 50만원 / 김선규 50만원
 이철민 50만원 / 한찬상 50만원 / 정순남 30만원 / 임준용 30만원
 오현철 30만원 / 민범순 30만원 / 윤경수 25만원 / 고윤준 20만원
 박명택 20만원 / 오현우 20만원 / 박동걸 10만원 / 이병정 10만원
 이정운 10만원 / 이상원 20만원 / 정진이 10만원 / 심명섭 10만원
 심재경 10만원 / 심재원 10만원 / 김순희 10만원 / 한설민 10만원
 한숙희 10만원 / 진병천 10만원 / 김귀애 10만원 / 박승호 10만원
 김순남 10만원 / 이종선 10만원 / 무상원 10만원 / 구자민 10만원
 강선규 5만원 / 김영진 5만원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 불기 2567년 5월 27일(양력) 오전 10시
- 대광사 대웅전 앞마당
-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비빔밥을 드립니다.

진해대광사 찬불단 / 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대광사 템플스테이

■ 프로그램 :

낯 용서하는 낯

■ 운 영 : 휴식형

■ 참가비 : 1인당 4만원

(미취학 ~ 초등 : 무료, 청소년 : 2만원)

대광사 템플스테이 신축관(휴심당) 안내

- 오픈예정 : 2023년 6월 중순 예정
- 참가비용 : 휴식형 - 1인 1박 5만원(최대 2박3일가능)
체험형 - 1인 1박 6만원(1박 2일)
- 예약방법 : 대광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가능(전화예약불가)



온라인 입금 안내

| | |
|-------------------------|-----------|
| 경남은행 : 518-07-0096440 | 예금주 - 대광사 |
| 수협 : 921-61-000421 | 예금주 - 대광사 |
| 농협 : 821145-51-042833 | 예금주 - 대광사 |
|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 예금주 - 대광사 |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